

“강진으로 귀농해, 이제는 완벽히 정착했어요”

고향 강진에서 시작한 강증복씨 오리농장 이야기 “명절 설이면 더 생각납니다, 결국 귀농이더라고요”

강진군 신전면에서 국화오리농장을 운영하는 강증복(46) 씨는 목포에서 오랫동안 해상엔지니어로 일하던 도시인이었다.

해상 구조물의 안전을 점검하고 설계와 수치를 다루던 그는 이제 바다 대신 농장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는 “일하는 대상만 바뀌었지, 구조를 보고 위험을 관리하는 일은 비슷하다”며 웃는다.

강 씨에게 강진은 늘 마음속에 남아 있던 곳이었다.

설 명절마다 고향에 내려올 때면 자연스럽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는 다시 여기서 살아야겠다.”

고향이라는 이유만으로 귀농을 선택하기엔 현실은 녹록지 않았지만, 명절마다 차곡차곡 쌓여온 애향심은 결국 그의 발걸음을 다시 강진으로 이끌었다.

그는 2023년 7월 귀농을 시작했고, 2025년 하반기 오리농장을 통으로 인수하며 본격적인 정착의 길에 들어섰다.

농장 이름부터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국화오리농장”이라는 이름은 아내의 이름인 ‘국화’에서 따왔다.

“농장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같이 버텨야 오래 갑니다”

설 명절에도 농장은 멈추지 않지만, 그는 이럴수록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긴다.

농장 점검은 짧고 정확하게 마치고, 가족 일정은 미리 계획해 놓는다.

귀농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정착은 가족 모두의 결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귀농은 내려가서 일만 하는 삶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뿌리내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강 씨의 귀농은 충동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정착 초반, 그는 지역 농업법인에 제직하며 농촌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웠다.

농업의 생산 구조와 유통이 돌아가는 방식, 사람과 조직이 움직이는 흐름을 현장에서 익혔고, 동시에 콩과 라이그라스를 직접 재배하며 날씨와 노동, 자금 흐름을 몸으로 경험했다.

“도시에서 일할 때도 감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귀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조를 먼저 봐야 했죠”

귀농을 준비하며 비슷한 축산업인 흑염소와 한우도 충분히 검토했다. 각각의 장점을 분명했다.

하지만 강 씨가 오리농장을 선택한 기준은 명확했다.

정착 속도, 수익 구조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리스크 관리였다.

오리는 계약·위탁사육 구조를 만들면 판매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폐사율과 증체를 같은 성적 지표로 성과를 관리할 수 있었다.

“배에서든 농장에서든, 가장 위험한 건 예측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 불확실성을 줄여줬어요”

2025년은 그의 귀농 여정에서 결정적인 해였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의 선도농가 멘토-멘티 1:1 맞춤 교육을 통해 실제 오리농가 현장에서 사육 관리부터 농장 운영 노하우까지 밀착 교육을 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에는 귀농 농업창업자 금 3억 원을 용자 지원받아 현재의 오리농장을 통매입하는 데 큰 힘을 얻었다.

“자금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없으면 시작조차 못 합니다. 교육과 자금이 같이 맞물렸어요”

현재 오리농장은 기업과 계약한 전량 위탁사육 구조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6년, 그는 또 한 단계 더 나아갔다.

2026년 귀농정착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농장의 하우스 개·보수 비용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처음엔 살아남는 게 목표였다면, 이

제는 오래 갈 수 있는 농장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강 씨의 사례는 특별한 성공담이라기 보다, 군이 준비해온 귀농 구조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은 귀농인이 혼자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선도농업인과의 멘토링, 자금·정착 지원이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현실적인 귀농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고향에 돌아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사람이 돌아오는 강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영광소방서, 흥농읍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방안전교육

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에서는 2월 11일 2026년 흥농읍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상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흥농읍복지회관에서 진행됐으며 노인일자리 참여자 85명을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 사용 요령 ▲ 가슴압박 중심의 심폐소생술 ▲ 뇌졸중 전조증상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노인 일자리 대상자는

“겨울철 화재 발생 위험도가 높은 난방기기 사용 시 주의 사항과 초기화재 대응 방법을 알게 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박의승 영광소방서장은 “겨울철에는 화재와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 어르신 대상 맞춤형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대상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겨울나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HD현대삼호, 설 맞아 지역 복지시설에 ‘온정’

김재을 사장, 목포 명도복지관 찾아 쌀·온누리상품권 등 후원

HD현대삼호(대표이사 김재을 사장)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지역 복지시설에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HD현대삼호 김재을 사장은 지난 12일 목포 명도복지관을 찾아 최미진 관장을 비롯한 시설 직원과 아동을 위로하고 쌀과 온누리상품권,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명도복지관은 지난 1992년 개관한 장애인 복지시설로 현재 이용자 700여 명, 직원 160여 명이 소속돼 있다.

김재을 사장은 이날 위문품 증정에 이은 간담회에서 “장애인 복지는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장애인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HD현대삼호는 이번 설을 맞아 영암군과 목포시 소재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쌀 140여 포와 온누리상품권, 생필품 등 2,500만여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 위문품으로 전달된 쌀은 ‘1사1촌 지매결연’을 맺은 영암 흥월마을에서 구입함으로써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했다. HD현대삼호는 회사 창립 이래 해마다 설과 추석 등 명절 때가 되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

설 명절 맞이 ‘클린공단 실천 캠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는 13일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에서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클린공단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공단은 지난 2월 3일부터 13일까지 약 2주 동안 ‘클린공단 실천주간’을 운영하며, 명절 전후 부패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임직원의 청렴·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15여명이 참여해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등을 적극 안내하고, 사무장병원(약국)특사경 도입, 국가건강(양)검진 활성화, 합리적 의료이용지원사업 등 공단의 정책에 대해서도 현장 홍보를 실시했다.

이영희 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단의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지역사회와 직접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청렴이 일상이 되는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청렴 선도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제54회 강진청자축제

휴과 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

2026년
2월 21일(토) - 3월 2일(월)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